

# 직업군인 전역 전·후 사회적응 과정에 관한 고찰

정재극\* · 정두진\*\*

## 요 약

우리 군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첨단화된 무기와 교육훈련으로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가진 군대로 성장하였지만 이를 운용하는 군인의 정년은 늘지 않고 있다. 퇴직 후 30-4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해야 하지만 타 공무원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은 직업군인들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사회생활에 접목하고자 하였지만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사회에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에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직업군인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전역이라는 종점이 왔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 2막에 대한 시작일 뿐 아직도 군생활보다 더 긴 사회생활이 남아 있다. 이를 현명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여 군생활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올바른 사회적응과정을 거쳐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 The Review on the Social Adaptation process of Professional Soldiers before and after Discharge

Jung Jae Keak\* · Jung, Doo jin\*\*

### ABSTRACT

The militar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had the world's strongest combat powers through systematic training and has been preparing for future wars with advanced arms. As the arms have been developed for the future, the medicine also has made so much progress that the average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about 30-40years compared to the past. Even though different problems about professional soldiers who have relatively lower retirement age, have come the surface, there seems to be no particular measures for them. Although they try to apply their ability and experiences obtained by the life in the military to the social life, they feel a great sense of loss when they realize that there is not many thing to apply. The job as a professional soldier has been everything for them, but the time to be discharged has come. However, this is the second act of their life, and also they have much longer social life than that in the military. Strong determination is needed to prepare wisely and rigorously for that and then to live a happy life as a member of society.

**Key words : Professional soldiers, Discharge, Military officers, Pension, Social Adaptation.**

접수일(2014년 10월 7일), 수정일(1차: 2014년 10월 17일),  
게재확정일(2014년 10월 20일)

\*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과

## 1. 서 론

우리나라 공무원은 경력직(일반직, 특정직, 기능직)과 특수 경력직(정무직, 별정직, 고용직, 계약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업군인의 경우도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 없으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대비하여 목숨을 담보로 한 직업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살상을 전제로 한 직업은 오직 군인뿐이고 그런 의미에서 직업군인에 대한 국민의 특별한 이해가 필요하다.[1]

직업군인은 장기복무이상의 장교와 부사관을 의미한다. 임관시부터 장기복무가 확정되는 사관학교(3사관학교는 장기복무선발과정을 거침) 출신과 ROTC, 학사장교 및 OJT 과정의 장교 출신의 장기복무선발과정을 통해 장기복무가 확정되는 장교와 부사관 등이 직업군인의 반열에 들어선다고 볼 수 있다. 직업군인이 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건강한 신체와 군에서 요구하는 일정기준의 소양을 통과하여야 한다. 계급과 보직 순환에 따라 복무를 해야 하고 조직관리, 지휘통솔력을 발휘해야 하며 엄격한 명령체계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군대 체질화 되어감과 동시에 사회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군 생활이 19년 6개월 이상이 되면 연금대상이 되는 동시에 전역을 결심하는 시기이며 이후에는 계급정년에 의해 원하지 않더라도 직업군인의 생활을 마쳐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게 된다. 군에서 군인정신과 계급의식은 사회생활을 하는 다른 직업 종사자들과 다른 점은 국가의 안위를 염려하며 북한군 및 안보위협세력을 이길 수 있는 전술전기만 연마하였다는 것이다. 사회생활에 대한 전혀 준비가 안된 그들이 바로 군 생활 20년 이상부터 정년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들이다.

분단된 조국에 태어나 투철한 국가관으로 군인의 꿈을 가지고 군에서 청춘을 묻고 오직 조국의 방패로 헌신한 직업군인들은 국민들에게 예우와 존경을 받을 만 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군인 생활을 하면서 국가 공무원으로서 생활하면서 가족을 건사하였다고 하지만 잦은 이사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고통도 감수하였고, 국민들이 가장 편하게 쉴 휴일과 명절, 각종 안보 위협시 영내대기를 하면서 개인 보다는 국가를 위해 헌신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랑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직업군인들이 병영부조리 근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체 직업군인들이 매도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이를 빌미로 군인연금과 각종 복지혜택을 줄이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2]

우리나라는 휴전후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보유하게 되었고 무기도 첨단화하여 미래전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무기가 발전 하듯 의학 또한 발전하여 인간의 평균수명이 과거보다 30-40년이나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타 공무원 직군보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은 군인들에게 조기에 사회에 진출하여 적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태이다.[3] 결국 직업군인들 대다수가 군인정신으로 무장된 상태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직업군인(연금대상자로 한정)이 전역전 직업보도반 입교시부터 전역후 1년 이내 인원을 대상으로 고찰하여 심리상태와 군생활의 습관 등을 알아보고 전역 전·후 조기에 사회에 적응하여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관련 자료는 인사사령부 전직지원 부서의 자료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일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전역 및 퇴역 군인들의 인터뷰, 생활실태를 근간으로 고찰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 2. 전역 전 심리상태와 군 생활의 정리

직업군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벽해야만 할 수 있는 공무원이다. 특히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직업이 직업군인이다. 이는 유사시 적과 싸워야 하는 집단이고 살인을 전제로 구성된 폭력이 허락된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군기, 엄정한 군법 적용, 상명하복의 생활은 일반사회인들이 겪어보지 못한 혹독한 복무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4] 병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육군기준으로 21개월이다. 이 시간도 우리의 부모들은 가슴 졸이고 당사자들은 힘들어하면서 군 복

무를 마친다. 그러한 군 생활을 20년 이상 하라고 하면 흔쾌히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겠는가. 대다수 국민들이 젊어서 기피하는 군 생활을 하였지만, 계급정년 제도로 인하여 더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내몰리고 있다. 인생의 황금기를 군대에서 보냈지만 더 이상 진급하지 못하고 현 계급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 군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많이 하게 된다. 이러한 마음은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군에 대한 고마움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로 진출하여야 한다.[5]

## 2.1 진급비선 의식에서 탈출

군에서 진급은 명예이며 상위직책을 수행해야 하는 책임과 동시에 누리는 혜택과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진급심사가 발표되면 선발자 들은 기쁨에 넘치겠지만 비선자 들은 승패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욱 승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진급의 대상자가 동기생을 포함하여 선배나 후배도 될 수 있는데 이때 경쟁이 과다하여 승복하지 못할 경우 두고두고 군을 원망하게 된다. 진급 비선자들은 대개 한직에서 전역시 까지 군 생활을 하다가 군복을 벗게 된다. 자부심으로 군 생활을 장기간 하였지만 진급심사에 선발되지 못한 이유로 전역시 군대와 상사에 대한 불만을 품는다거나 진급자에 대한 증오감을 갖는 것은 사회적응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진급 비선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자세 전환을 돕는 어떤 프로그램도 개발되지 않았기에 전역자들 중에는 평생 진급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등이 있는가 하면 진급 경쟁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으로 자학하며 군 전역 후에도 진급된 사람과 적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진급 비선자에 대한 사회적응할 수 있도록 군대와 사회에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당사자의 노력으로 군대생활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깔끔하게 하여야 한다. 군 생활을 20년 이상 복무하였다는 것 자체가 보람되고 명예롭게 생각하여야 한다.

## 2.2 인생 2막 설정

직업군인들의 전역시 연령은 40-50대이다. 평균수

명이 80세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도 30-40년 이상이 된다. 군인으로서의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겠지만 군대생활이 인생의 종점은 아니다. 앞으로 전혀 다른 인생의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의 군대생활보다 얼마일지 모르나 미래의 새로운 인생살이가 더욱 중요한 것임에 틀림없다. 태어나서 군 생활까지를 인생 1막이라고 하면 군 전역과 동시에 인생 2막이 시작된다고 구분해 볼 수 있다. 지난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다. 인생 2막을 설정함에 있어 군에서의 사고방식대로 교만한 계급의식을 갖거나 패배의식은 금물이다. 군에서 주선하는 직업보도교육과 각종 전역 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군생활보다 긴 사회생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3 전역전 군 생활정리

전역전 6개월 전부터 특별한 일정을 계획하여 군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군 생활동안 가족친지를 방문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며 애경사에 동참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전역 전 생존한 집안 어른신과 조상님의 덕분으로 무사히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더불어 그분들이 노후에 어떻게 지내는 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소감을 기록하여 참고자료로 관리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고향을 농어촌으로 둔 경우 유년의 추억이 남아 있을 것이다. 세월이 흘러 산천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어린시절 꿈을 간직하고 희망을 품었던 고향은 항상 용기와 힘을 주는 원천일 것이다. 고향이웃과 어른들, 친구들도 찾아보고 그들이 삶을 눈여겨 보며 다르게 살아온 방식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방문하여 꿈을 키우며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삶의 활력을 얻는 것이 좋다.

신혼여행지를 방문하여 신혼의 꿈과 희망을 가졌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아내에게 내조의 고마움도 전하고 새로운 인생의 단계를 설계한다면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것이다. 군

이 신희여행지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합심하여 계획을 세우고 참신한 구상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국내 및 해외여행도 좋을 것이다.

봉사시설을 방문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다보면 희극보다는 비극이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되돌아 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보육 시설에 맡겨진 아이, 선. 후천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인성 질환으로 삶을 마감하기 위해 입원하고 있는 요양원 등을 방문하여 봉사를 하면서 건강하게 전역하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남은 삶을 보람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활동을 병행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치열한 삶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남들이 모든 잠든 이른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농수산물 시장과 동대문시장상인들의 사는 모습을 본다면 그동안 안일하게 살아온 부분이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희망과 치열한 인생 2막에 대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전역하는 날 가족, 친지들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 군에서 전역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삶을 계획하였음을 선언하고 새로운 사회생활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와 축하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인생 1막의 끝을 선언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여야 한다.

### 3. 전역 후 자기관리

전역 후 시간이 많이 남아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만나지 못한 지인들을 만나는 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루해 지거나 생활리듬이 흐트러져 몸과 마음이 황폐화되어 가게 된다. 이시기에 자기관리와 더불어 군에서 습성화된 행동들을 떨쳐내고 사회인으로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1 생활리듬관리

20년 이상을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기약 없는 퇴근과 대기 등으로 긴장상태를 유지하다가 전역과 동시에 시간이 많아지면 처음에는 즐겁겠지만 시간이 지

날수록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특히 직업이 없다면 딱히 어디 갈 곳도 없어 무료한 나머지 생활리듬이 깨지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짜증이나 불만으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활리듬의 기본인 기상과 취침시간, 그리고 식사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평생 최소한의 생활리듬은 지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만약 수면과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면 금방 나태한 습성이 생활리듬을 흔들며 활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이다. 전역 후 당장 재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생활 리듬을 관리하기 위하여 집 안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고 독학생으로서 오전과 오후 일과를 만들어 소화해 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가적으로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적당히 인적 교류를 통해 자극과 도전을 받아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도 좋고 신앙생활을 하며 종교인들과 신앙적 친교의 범위를 넓혀 위안과 격려로 용기와 희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 3.2 건강관리

군인의 이른 기상과 체조로 훈련되어져 있다. 현역 시절에 적응된 시간에 일어나 명상과 체조 등을 통하여 하루의 시작을 규칙적으로 시작하여야 한다. 과식과 과음은 금물이다. 군에서 회식은 원하지 않더라도 분위기에 휩쓸려 과식과 과음을 하게 되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호하게 버려야할 습관이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함을 물론 매일 만보이상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것을 생활화 하여야 주 3회 정도는 땀이 날 정도로 유산소 운동도 병행하여 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전역 후 군에서 해왔던 방식대로 골프와 테니스도 좋은 운동이지만 같이 운동할 인원이 모여야만 가능하므로 언제라도 마음 내키면 운동할 수 있는 등산 또는 조깅 등이 건강을 위해서는 좋을 것이다. 근력을 보강할 무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관절을 보호하고 근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 3.3 언어습관

군 생활중 몸에 밴 행동 중에 하나가 명령과 반말

하는 습관이다.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후배, 병사들에게 반말과 명령을 해왔던 그대로 사회인들과의 생활에서도 은연중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사회에서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 반말을 하였다가는 망신당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반말과 명령은 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명하고 권위를 앞세웠지만 사회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명명하기 앞서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하고 가족을 제외한 남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어사용을 습성화 하여야 한다.

### 3.4 공짜근성

군인들이 민간인들과 업무상 만나더라도 가벼운 식사 정도의 접대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3만원 이내의 식사는 접대를 받는다고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공짜로 누가 밥을 사지 않는다. 업무상 이익이 발생하여야 만나고 밥도 먹고 하는 것이다. 사회친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에서는 품앗이 개념이기 때문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한다.

### 3.5 권위주의

사회인과 어울리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상하의식으로 인한 계급적 사고방식과 권위주의이다. 군에서야 전쟁을 위한 조직이니 군기가 요구되고 일사분란한 전투를 위해 권위는 절대적이겠지만, 사회인들과 어울리는 공간에서 이러한 권위주의적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사람들이 꺼려 할 것이다. 겸손과 예의, 친절과 미소로 자신을 낮추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 전역군인 사회적응과정

전역 군인 사회적응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교육훈련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위탁교육에는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고 기본교육에는 전직기본교육과 소자본창업교육이 있으며 직업 바우처 교육과 사이버

교육으로 구성하여 전역 군인의 사회적응 및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6]

### 4.1 기본교육

전직기본교육의 목표인원은 매 기수 225명이며 소자본창업교육은 매 기수 50명으로 편성된다.

<표 1> 2014년 기본교육

과정명	교육장소	차수	목표(명)	교육기간	교육일정
전직기본교육	보훈교육연구원	1-12	2,700	2주	매월
소자본창업교육	보훈교육연구원	1-6	300	1주	3,4,6,8,10,11월

<출처 : 국가보훈처 2014년 교육일정>

### 4.2 대학 위탁교육

대학 위탁교육은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불편이 예상되고 있지만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은 다양한 과정이 개설되어 있어 적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는다면 전역군인 사회적응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 2> 2014년 대학 위탁교육

센터	과정명	교육기관	교육인원	교육기간
서울	경영유통관리전문가	가천대학교	40명	3월-7월
	인사,노무관리전문가	가천대학교	40명	8월-12월
	사회복지시설경영자	상명대학교	35명	8월-12월
경기북부	건물시설관리전문가	경북대학교	25명	4월-6월
부산	제품가공실무	한국폴리텍대학부산캠퍼스	15명	2월-5월
	경비지도사	창신대학교	20명	7월-11월

<출처 : 국가보훈처 2014년 교육일정>

### 4.3 직업교육 바우처

1인당 120만원 한도내에서 개인이 스스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비는 개인이 선납 후 교육수료 확인 후 통장으로 입금하는 개념이다. 지원 교육과정으로 본인의 제출한 직업훈련계획서상의 취·창업 분야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며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교육과정은 제외된다.

### 4.4 사이버 교육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3과목 연 10과목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과정(407과목)과 외국어과정(196과목), 기본소양 및 직무능력 향상과정(111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 5. 결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택했지만 세월이 흘러 전역을 하게 될 무렵 그 전환기의 충격은 쉽게 가지지 않는다. 생과 사의 냉엄한 전장을 가정하여 교육과 훈련으로 청춘을 보냈으니 단순하고 경직된 사고방식과 습성은 전역전부터 전역 직후까지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까지 스트레스가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지만 중, 대령, 원사 만기 전역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도 재취업은 어려운 상태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사회인들도 퇴직할 나이에 재취업을 원하고 있고, 군생활간 몸에 밴 계급의식과 지시만 했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나이 어린 상급자에 대한 복종의식 부족, 연금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사회생활의 부적응 등이 전역직업군인들을 고용하였던 인사 실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직업군인들이 전역해도 쉽게 버리지 못하는 행동들로는 습관화된 조기출근과 통제된 공간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군 체력단련 시간과 환경을 활용한 건강관

리, 언어적 습관, 접대와 회식문화, 권위주의적 생활태도 등을 꼽았다.

전역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직 교육프로그램을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하여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고 전역군인들은 성실하게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자격증을 취득하였다더라도 내면적 사회적응을 위한 보이지 않는 갈등과 인생 후반에 대한 서글픔 등이 복합적으로 오게 되는 전역 전·후 1년은 직업군인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간이라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인생 2막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로 알아 보기 전에 스스로가 군인적 사고와 행동에서 탈피하여 사회인이 되기 위한 적응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직업군인들이 전역전후 심각한 우울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위축된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구직과 더불어 주변을 둘러보며 어울려 사는 내면적인 사회생활을 먼저 배워나가야 할 것이다. 전후방 각지를 옮겨가며 복무해야 하는 군인의 특성은 곧 고향이 아닌 곳에서 정착할 확률이 높고 장기간 인간관계를 맺어 놓은 사회인도 없기 때문에 전역과 동시에 시골에 살면 농부로, 도시에 살면 푸근한 이웃 아저씨로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군복무를 한 직업군인들이 사회적응 과정 중 내면적인 적응이 먼저이며 각종 교육 프로그램 통한 재취업은 차선으로 넘겨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진다. 체질화된 군인정신과 행동들을 전역 전·후 1년 이내에 사회인으로 적응에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최성희, '퇴직예정군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 2012.
- [2] 김주신, '제대군인 사회복지 지원방안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6-7, 2012.
- [3] 이용재, '전직지원서비스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한 연구', pp32-33, 2011.

- [4] 서운석, '제대군인 사회적응 및 사회재취업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분석', 담론과정책, 제4권 제1호, p26, 2011.
- [5] 김영태, '직업군인의 정년제도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87-19, 2013.
- [6] 국가보훈처, "2014 중·장기복무제대군인 교육훈련안내", pp 6-7, 2014.

————— [자 자 소개] —————



**정 재 극(Jung, Jae-Keak)**

1990년 학사  
1996년 석사  
2013년 박사  
2011년 ~ 현재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

e-mail : kuk2934@naver.com



**정 두 진(Jung, Doo-jin)**

1986년 학사  
1988년 석사  
2004년 박사  
2009년 ~ 현재 수성대학교  
보건복지경영과 교수

e-mail : jungdj@sc.ac.kr